

## 2010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요약

### 가. 방송부문

#### 1) 방송목표

##### 가) 방송 편성목표 설정의 적절성

2010년 편성지표 ‘사교육 없는 인재 대국, EBS가 앞장섭니다’와 편성목표 ‘교육 정체성 강화’ 및 ‘채널 경쟁력 강화’ 경영지표 ‘교육변화를 선도하는 EBS’ 및 설립목적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과 부합된다.

EBS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채널로서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등을 운영하고 있다. EBS TV도 부분적으로 학교교육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EBS 플러스1의 수능프로그램은 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했다.

비학습채널인 EBS TV와 EBS FM은 국민들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EBS TV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식과 교육 정보, 직업교육, 부모교육,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송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생방송 TV 입학 사정관>이나, <생방송 교육마당>을 편성하여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EBS 교육 대기행 9부작>을 편성하여 사교육을 중시하는 교육 문화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백색열전 불타는 북극>, <한반도 매머드>, <하버드 특강 ‘정의’> 등을 통해 2010년에 EBS TV는 학습채널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전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및 민주적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정체성 강화’의 편성목표는 달성되었다 평가할 수 있지만, ‘경쟁력 강화’의 편성목표는 아직도 미흡하다. 방송채널의 경쟁력은 시청률로 말한다. 그런데 EBS의 평균 시청률은 1%에 미치지 못한다. EBS의 채널의 특성이나 재원의 한계성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시청률 제고를 통한 EBS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편성목표를 구체적 시청률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방송 편성과 운영

### 가) 방송 편성비율의 적절성

EBS(지상파 TV 및 지상파 라디오와 플러스1, 플러스 2, EBS English, EBSu)는 방송법 제69조4항(전문편성)과 동시행령 제50조4항1호(지상파방송)와 제2호(기타방송)의 ‘주된 방송프로그램’, ‘비상업적 광고’, ‘외주제작프로그램’, ‘국내제작 프로그램’, ‘국내제작 영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국내제작 대중음악’ 등의 ‘의무 편성비율’을 완벽하게 준수했다.

EBS는 채널 특성화가 잘 되어 있다. 플러스1과 플러스2는 학습 전문 채널이다. EBS English, EBSu 등도 학습프로그램과 평생교육으로 특화되어 있다. EBS 채널들은 시청대상도 분화되어 있다. EBS 특성에 따른 매체별 편성시간 배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BS TV와 EBS 라디오는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시간대에 따라 편성시간대를 구분하고 학교교육, 지식과 정보, 교양, 문화, 직업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포맷으로 서비스하지만, 평생교육 채널로 특성화되어 있다.

EBS는 2010년에도 <다문화가족 드라마-마주보며 웃어>를 비롯해서 <사랑해요 코리아>, <유아독존>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효도우미 0700>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노년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반기에는 5%, 후반기에는 3.9%를 편성함은 물론, 장애인들의 시청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자막방송(83.2%), 수화방송(6.1%), 화면해설방송(6.6%)을 실시하는 등 소수계층을 배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의 기준

비학습 채널인 EBS TV/라디오는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 기준으로 시청률 및 EPEI, CI지수, EBS 수용자 조사를 통해 EBS의 정체성, 시대의 변화와 시청취자 기호 변화, 제작 투입요소에 비해 산출 효과 등을 반영하여, 편성수립 절차에 따라 신설 및 폐지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는 원칙하에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다.

반면에 EBS 플러스1과 플러스2, EBS English는 학습자들의 요구와 교육과정에 부합성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 업무를 처리한다. 비학습채널과 학습채널로 구분하여 ‘채널별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채널간의 특성화를 고려했다는 타당성을 갖는다.

EBS의 설립목적에 명시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EBS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시청자들이 찾아 시청하는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기 위해 향후에는 시청률을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다) 방송 운행의 정시성 정도

프로그램 편성표는 시청자와의 기본적 약속이며, 편성의 정시운행은 공영방송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EBS는 채널의 속성상 생방송이 적고 광고 수주량이 다른 지상파 방송들에 비해 적은 이유로 정시 방송운영이 잘 지켜지는 채널이다.

2010년도 EBS의 정시운영률은 99.99%였다. 2009년보다도 정시운행은 더 잘 지켜졌다. 2010년에 방영된 정규프로그램 86,169편 중에서 10분 이상 지연된 프로그램은 EBS TV의 12편으로 2009년보다 4편 감소했다.

## 3)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 가) 프로그램의 완성도

프로그램 제작 투입요소가 프로그램 완성도를 규정한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제작이 필요한데, 사전제작은 많은 투자비를 요구한다. EBS는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제작비가 낮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경제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고, EBS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고품격 대형 다큐멘터리에 집중하였다. <EBS 다큐 프라임> 신규 방송분량 전편(135편 6,750분 분량)을 6월 이상 1년에 걸쳐 사전 기획·제작했다. 2009년과 비교하여 305분이 늘어난 결과이다.

2010년 신규 제작·방송된 방송분 전편이 사전 기획·제작된 <EBS 다큐 프라임>은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과 깊이 있는 주제를 담아 시청자들의 호응과 사회적인 반향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탁월한 성과는 시청률과 국내외 프로그램 콘테스트 수상으

로 이어졌다. 2010년 실시된 EPEI 조사에서 시청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0년에 사전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은 EBS 전체 프로그램들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건수 40건의 40%인 16건에 달했으며, 2009년도와 단순 비교해도 60% 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사전 제작이 프로그램 완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반증이다.

일부 유아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사전 기획 및 제작이 이루어졌다. CI조사에서 ‘유아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잘 제작하는 방송사’, ‘유아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송’으로 평가받았다.

2010년도 사전 기획·제작 프로그램은 주로 다큐멘터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정규 프로그램도 사전 기획·제작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제작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가족 시간대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대상 신규 콘텐츠 등의 사전기획 프로젝트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 나)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2009년과 비교해 2010년에는 자체시설 및 장비 활용률을 증가시켜 제작비 투입요소를 줄임으로써 외주장비 용역비율을 12.2% 감소시켰다. 이것이 제작비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

EBS는 효율적인 제작비 예산 관리를 위해 집행기준을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편성주기별 별결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2009년도 봄개편 편성시기부터 적용해 왔던 별결 가이드라인 10% 절감 기준액, 즉 별결제작비 10% 절감 기준액을 2010년도에도 계속 적용하여 제작비단가 상승을 억제했다.

제작비 절감만이 강요된다면 제작비 절감은 프로그램 완성도로 직결되어 결국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EBS의 별결기준은 타당하다. EBS는 2009년에 제작비 지급규정과 별결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2009년에는 별결 제작비 10%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도에도 별결기준의 효율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절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따라서 이제는 전년도와의 단순비교가 아니라, 연도별 제작비의 자연 상승분을 감안한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표준제작비 집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유형별 현실적인 표준제작비를 설정해야 한다.

## 다)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합리성

2010년도 전반기는 2009년도 후반기보다 9.62% 감소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기준인 EBS의 외주 제작프로그램 비율 20%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0년에 EBS는 제작경험이 풍부한 PD들로 외주관리 프로듀서를 맡게 하여 외주 프로그램의 질적 담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외주제작사를 지도하고, 모든 외주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향후 재계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정하게 외주제작사를 선정하기 위한 9인으로 구성된 외주제작위원회와 외부 심사위원 활용 등 체계적 시스템도 구축했다. 그리고 공모제를 통해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외주제작사 선정 방식에 대한 절차와 지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라) 여론 및 외부평가 수렴의 합리성

EBS는 외부평가를 수렴하기 위해 시청자센터, 시청자위원회, 평가요원제 등과 같은 제도화된 내부기관의 평가 그리고 전문가가 의뢰한 조사연구나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센터는 시청자의 요구와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EBS 내부 평가기관이다. 2010년도 한 해에 397,02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0년도 상담 만족도 자체조사 결과, 매우 만족 78.5%, 만족 20.8%로 전체 조사자들 중 99.3%가 상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평가요원제는 매일 배정된 프로그램을 모니터해서 평가의견서를 제출하고, 월 1회 평가의견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집중평가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그밖에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개발이나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EPEI, CI지수 등을 측정했다.

## 4) 시청자 서비스

### 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및 시청자 의견 수용정도

EBS가 운용하는 시청자 의견 수용 제도로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센터의 시청자

상담', 'EBS 대표와의 대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시청자 의견 수렴' 형태 등이 있다.

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선정된 12명의 위원이 '유아 어린이분과', '청소년 외국어분과', '성인 교양분과'로 구분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필요한 제언을 제출한다. 2010년도에 시청자위원회가 제언한 412건 중에서 제작환경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반영이 어려운 5건을 제외한 407건에 대해 현업에서 반영하여 프로그램 질을 개선한 효과를 낳았다.

<시청자상담>은 1588-1580과 526-2000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게시판 상담은 EBS, EBSi, EBSLANG, EBSe 홈페이지에 있는 이용문의 게시판 상담, EBS 홈페이지의 'EBS에 바란다' 게시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일상담은 불만상담 전담 메일인 hotline@ebs.co.kr이 있고, 각 홈페이지에 helpdesk 메일로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상담이 접수되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처리되며, 바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부서에 답변을 요청하여 추후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상담 표본조사를 통하여 상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상담품질의 퀄리티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대표와의 대화' 시스템은 EBS 대표가 시청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2010년도 10,44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시청자 건의를 접수하는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시청자 의견을 반영한 채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EBS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폭넓은 외부평가를 수용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의 수요 증가로 트위터, 페이스북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2011년 1월 본격 운영을 위해 2010년 6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하여, 팔로워 1,536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에 의한 게시글은 876건이었다. 페이스북을 통한 상담서비스 역시 2011년 1월 본격 운영을 위해 2010년 12월 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2011년에 게시글이 90건 올라왔다.

## 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EBS TV는 주간 편성시간의 13.3%를, EBS FM은 19%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들 참여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시청자와 공감하는데 기여해 왔다.

2010년 ‘국민편성제안제’등 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국민 대상 기획안 공모제도로 시청자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시청자 요구를 파악하고 적극 반영해 공영방송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청자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0 국민편성제안제’ 총 151건이 응모되었다. 151편 응모작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2011년 봄 개편 시 <직업의 세계-일인자>, <선택! 직업과 진로>, <인생 후반전> 등 직업 프로그램, <숲속의 요정들>, <꼬마 요리사>, <동물일기> 등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선생님 선생님 우리선생님>,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교육, 화제의 인물> 등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EBS도 교육 현장의 생생한 영상을 시청자들이 촬영한 UCC 영상물을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이나 <EBS 교육뉴스>에 ‘시청자 코너’를 두고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UCC를 서비스할 때 시청자 공감을 확대하고 시청자와 함께하는 채널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다) EBS 모니터제도의 운용정도

EBS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사전 자체 심의, 프로그램 평가요원의 사후 모니터 그리고 매주 수요합평회를 운영했다.

자체심의는 제작경험이 풍부한 PD들 중 위촉된 6명의 위원들이 담당한다. 심의를 위해 심의시청자부는 연간 심의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6명의 심의위원에게 분장한다. 프로그램 자체심의는 방송 3일전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심의를 위해 제작부서에 방송 5일 전에 통지한다. 제작부서는 방송 1일 전에 심의위원에게 복사된 테이프를 전달한다. 담당 심의위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한 후에 지적사항은 구두로 제작부서에 전달하여 수정하게 한다. 제작부서는 지시 사항의 이행 결과를 즉시 통지한다.

수요 합동심의는 2010년 3월부터 최초로 시작하여 매주 1회씩 총 30회 진행되었다. 합동심의의 건은 모니터 요원의 평가결과나 심의위원이 요청한 중요한 건을 다룬다.

2010년 심의업무 추진계획서에 따라 116개 프로그램 18,641건(TV 8,877편, 라디오 9,528편)은 제작부서 자체의 자율심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23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TV 프로그램 2,126편, 라디오 프로그램 73편 등 2,199편을 자체 심의했다.

2010년에 EBS의 심의대상 총 편수는 20,840편으로 이중 자체 심의 실적은 2,199편이었으며, 나머지 18,641편은 자율심의로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는 부분수정 TV 378건, 라디오 2건이었다. 구두로 제작부서에 지시하고, 제작부서로 하여금 즉시 수정하여 방송하도록 하였다.

외부평가제도로서 모니터 요원은 주당 TV 4편과 라디오 1편을 모니터하도록 분담되고, 월 최소 18편 이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도에는 12명의 모니터요원이 2,999편을 모니터했다.

매주 모니터 보고서에 의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한편씩 선정하여 매주 수요일에 심의위원 6명이 참여하는 합동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작부서에 통보하고, 제작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다.

## 5) 방송성과

### 가) 평생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의 목표시청률 점유 정도

EBS는 주간 편성시간대를 유아·어린이 시간대, 성인 시간대 등 대상별로 블록화하고 목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편성전략을 구사해왔다.

EBS TV는 유아·어린이 편성시간대를 월~금 07:30~10:00와 15:00~19:30, 토·일 08:00~12:00까지로 집중화하여 목표 시청자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해당 시간대의 주요 목표 시청자를 4~12세 유아·어린이로 설정했다. 유아·어린이 편성 비율은 상반기 30%, 하반기 28%로 주요 목표 시청자에 대한 편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유아 및 어린이 개인시청률 면에서도 타 방송사에 비해 가장 높은 시청률 및 점유율을 보였다. EBS의 어린이 시간대 유아와 어린이들의 시청률과 점유율을 타방송사와 비교하면 2010년도는 2009년의 11.82%보다는 다소 낮은 11.69% 수준이었지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성인 시간대는 월~금 21:00~24:00까지를 성인 시간대로 설정, 집중 편성함으로써 성인 시청자의 평생 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했다. 청소년 시간대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성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인 시간대 가구별 시청률은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점유율 역시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 나)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평가정도

2010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의 <다큐프라임 : 인간과 고양이>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점으로 무려 5회나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하게 되면서, 각종 시상식에서 다양한 부문을 수상한 결과 2009년의 31건보다 많은 40건의 프로그램들이 국내 기관들로부터 수상하였다.

EBS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과 함께 각종 국제 프로그램 페스티벌에도 적극적 자세로 13편의 프로그램을 출품한 결과, 해외에서도 EBS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이런 결과로 2009년에는 전무하였던 해외 프로그램 콘테스트에서 본선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10건의 프로그램 수상 실적과 EBS 기관 자체가 수상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작비 투자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EBS의 제작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방송사들과의 협력 제작이나, 정부기관의 지원금 유치 등 국내의 우수한 기관들로부터 지원금을 유치하거나 협찬을 받아 제작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다) 콘텐츠 내부관리 및 멀티유즈 정도

EBS는 CATV, 사내방송, KTX에서의 VOD/AOD 서비스, DVD를 통한 방송콘텐츠 활용/재활용 이외에도 수익 증대 및 EBS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 판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0년 EBS는 수능강의, 프로그램 수출, 복사 판매 등을 위한 콘텐츠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기반의 활용과 재활용 실적 제고와 활용과 재활용 기회 및 범위를 확장하여, 콘텐츠 외부활용 판매 및 제휴사업/광고 유치 등으로 2,128,136천원, 대행 보급 사업으로 1,284,728천원, 방영권 판매로 1,190,992천원, 셀루스로 49,064천원, 복사 판매로 423,039천원, 공연공 판매로 1,190,992천원 등 총 6,266,951천원의 국내 판매실적을 올렸다.

또한 2010년에는 EBS 최초로 일본 NHK 지상파와 중국 CCTV에 <한반도의 매머드>를 수출했으며, 국내 최초로 미국 다큐전문 채널 Smithsonian Channel과 이탈리아 국영 RAI에 <바람의 혼, 참매>를 수출했다. 그 결과 총 963편 78만\$의 프로그램을 수출했다.

향후에도 콘텐츠 멀티유즈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조사와 수요자의

needs 분석 및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 제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자 양성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콘텐츠 활용 계획도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제작부와 콘텐츠사업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BS의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프로그램 완성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협찬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라) EPEI/CI 등 평가지수의 적정성

EPEI 및 CI 조사결과, 창의성 영역의 평가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EBS 프로그램의 완성도, 흥미성, 공익성, 교육성 등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적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의 결과를 미루어 EBS 프로그램의 민주시민의식교육 함양과 재교육 성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EBS의 유아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들의 평가는 개선되었는데도 유아 어린이의 만족도 결과는 2009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사실은 EBS가 유아와 어린이 프로그램 내용 및 형식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분석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에 반영해 목표 시청자층 만족도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6)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 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노력 정도

비학습채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기준으로 시청률 반영 지적만을 제외하고, 협찬의 다각화, 외주제작사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심사위원 위촉,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편중, 해외방송시장 확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증대 대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인지 제고 등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했다.

## 나. 교육부문

### 1) 방송교육 시스템

#### 가) 방송교육 목표 설정의 적절성

2010사업연도에 EBS가 학교교육 보완, 사교육비 절감,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방송교육부문의 3대 목표로 설정한 것은 EBS의 설립 목적에 근본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EBS 설립목적 자체에서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이 서로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지표에서 “평생·민주교육”과 같은 용법으로 양자를 결합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학교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은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두 목표에 비해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진해 보인다. 사업의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프로그램 제작의 외주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편성기획부가 ‘사교육 없는 인재 대국 수립’, ‘교육 정체성 강화’, ‘채널 경쟁력 강화’를 실천목표로 삼고 각 매체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기획, 배치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본다.

학교교육기획부는 문제은행 구축, 교사연수 확대, 개념학습클리프 개발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는데, 그 또한 방송교육 목표를 잘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세부 과제들은 성실하게 실행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나)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연구조직 활용 및 대외협력의 적정성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 분석과 설계 작업의 중요성에 비할 때 추진력과 추진성고가 미흡해 보인다. 「2010년 학교교육동향자료집」은 EBS의 핵심 문제 영역들을 개별적으로는 충실하게 검토하였으나 거시적, 포괄적,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특히 자료집의 발간 목적 자체를 사교육시장 분석, 수능강의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창의적인 기획으로 EBS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망하지 않았다. 「EBS 교육방송연구소 중·장기 발전 방안」연구 또한 교육방송연구소 자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치중하느라 EBS 전체의 중·장기 진로를 설

계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교육전문성은 EBS를 다른 방송과 차별화하는 핵심적인 지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는 EBS 특유의 교육전문성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자체 연구조직으로서 교육방송연구소는 전년도에 비해 인력과 예산 양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사급 연구원 1명으로 R&D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핵심 사업인 연구의 외주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교육방송연구소는 외부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EBS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 연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체 인력의 연구 역량을 높이려고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다.

대외협력 부분에 관련해서는 70% 수능연계정책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MOU를 체결하였고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책을 개선하고자 ‘학교교육자문위원회’,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를 비롯한 유익한 회의체들을 활발하게 운영하였다.

## 다) 프로그램 기획·제작 시 교육목표 평가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기획·제작에서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충실한 편이며 잘 시스템화 되어 있다.

그 목표를 기획·제작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회의, 모니터링, 자문, 콘텐츠 맵 등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목표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도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비판적인 관점에서 부단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라) 교육콘텐츠(리소스) 확보 및 개발정도

인터넷 수능강의, 수준별 맞춤형 강좌, 저자 직장 교재 세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콘텐츠 개발은 괄목할 성과를 나타냈다. 인터넷 수능강의는 커리큘럼 개발 48건, 교재출판 26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수준별 맞춤형 강좌는 수준별, 단계별 강좌를

확대하고 협력교재 및 개념학습 강좌를 확대하였으며 현장강의도 확대하였다.

양적인 측면에서 EBS의 2010년도 교육콘텐츠 개발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에 필적하는 발전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평가되지 않고 있다.

## 마)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확보 적절성

2010년 현재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EBS 직원 174명 가운데 교원자격증 보유자는 32명으로서 18.4% 수준이며, 교사경력자는 16명으로 9.2%에 불과하다. 학교교육의 보안을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명시하고 있는 EBS의 특성상 이 비율들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사내외 교육프로그램들의 운영은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 같다.

EBS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자원자들을 인턴십의 형태로 미리 선발하여 EBS가 요구하는 교육전문성에 적합하게 훈련시키고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방송연구소가 R&D 기능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제작 직원들을 순환제로 연구소에 파견하여 직무 중에 발견한 문제나 아이디어를 심층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 바) 참여자·출연자의 교육전문성 평가정도

참여자와 출연자의 교육전문성 평가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지금도 각 부서가 특성에 맞게 다각도로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전문성의 지표 부재로 평가 지침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교사자격, 교육경력과 같은 외부적 지표 이외에 EBS 각 부서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전문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출연자, 감수자에게 방송교육의 목표와 편성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그들의 참여, 출연, 감수 수준에 대한 사후 평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종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전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풀 DB를 더 확대

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사)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의 목표와 대상이 있을 경우에 공동기획, 교차편성 등으로 상호보완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편성센터의 센터장과 각 부장들이 수시로 협의하여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시 다른 매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잘 조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목표별 프로그램을 상호보완적 체제 속에서 편성하고 매체 간의 공동기획과 교차편성을 할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실제로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연구하여 직원들 서로가 공유하고 신입사원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 **아)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제도의 합리성**

정부의 수능연계 강화 정책에 따라서 EBS 교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교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졌고, EBS도 그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EBS 교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원고료 지급방식을 매절에서 인세로 전환하였다. 이 조치로 원고료가 종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실질 인상되었으며, 그만큼 원고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원고공모제를 확대하여 종전 문항단위에 한정하던 것을 회차 단위와 책 단위까지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집필자의 응모도를 높일 수 있었다.

오타자와 내용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외주 편집 및 검토 부문에 대해서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운영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교재개발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을 평가에 참여시키고, 평가방법을 타당화하며,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 2) 방송교육 과정

### 가)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및 방송 후 평가의 적절성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는 교직경력이 있는 직원과 학교현장 교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 점에서 시범학교, 수능시범학교를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서별 프로그램 기획, 제작, 평가, 검수 등에 참여하는 인력 진용에서 현직교사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방송 후 평가의 경우 계량적인 방법으로 좋고 나쁨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심층면담을 통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EBS 학교교육 보완 콘텐츠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가이드, 홍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BS의 활동과 프로그램 전반을 보기 쉽게 정리한 「EBS 가이드」 같은 소규모 안내책자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

### 나) 민주시민의식 교육 비중의 균형성

민주시민의식 교육은 EBS의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인 ‘민주적 교육발전’의 차원에서 좀 더 폭 넓게 해석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설립목적이 너무 협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연구와 기획이 아쉽다.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의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

특히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날로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EBS 특유의 기여 방안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 3) 방송교육 성과

#### 가) 목표시청자 완강률,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치의 적정성

2010년도 EBSi의 완강률은 전년도 대비 약 62%가 증가하였다. EBSe 프로그램의 VOD 히트수는 2009년도 대비 14.1% 증가하였고, 다운로드수는 49.4% 증가하였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입시부문의 EBS 교육프로그램 이용률은 수능강의의 경우 97.4%, 내신 프로그램의 경우 66.0%, 대학별고사의 경우 64.0%가 증가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연구한 「2010년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에 의하면 대도시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수능강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학생들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는 먼저 왜 그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은지 원인과 이유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운영을 강화한 이후 강좌 이수율이 현저히 높아진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는 이용자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 것으로서 향후 EBS 방송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나)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정도와 학교현장의 평가

공교육 보완을 위해 시행한 여러 사업 중에서 시범학교와 수능시범학교의 운영이 돋보인다.

「EBS 시범학교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각 시범학교가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학력 향상은 물론이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및 능력 신장 등에서 괄목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능시범학교의 경우에도 참여한 학교들이 EBS 수능강의를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화 지도, 멘토링제 활성화 등과 결부하여 학력 신장 효과를 얻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에도 현저한 기여가 확인되고 있다.

EBSi 수준별 학습 로드맵은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취약한 영역 혹은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를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과 외부 기관의 평가를 너무 긍정 일변도로 기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비판적인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자세이다.

EBS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시간적, 지리적 한계 때문에 참여가 부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EBS 연수팀이 현장들을 방문하여 직접 연수를 시키고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 다) EBS프로그램 및 출판교재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정도

출판사업부는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면당단가의 2009년 대비 중학 3.2%, 고교 5.5%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2010년 7월 4일에는 수능교재의 면당단가를 전년대비 10% 인하하였다.

EBSi 점유율은 2009년도에 26.4%였던 것이 2010년에는 37.0%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1일 평균 강의이용건수도 30만 건에서 57만 건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EBS 학습프로그램이 사교육 대체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본다.

EBS 수능강의가 유발하는 사교육비 절감 규모를 「2010년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직접적인 사교육비 억제효과가 약 6,526억원이며 간접적인 사교육비 억제효과가 약 3,360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약 9,886억원에 달한다.

사교육비 절감은 총액 규모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농어촌 가정,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들에게 일종의 ‘역차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획, 배려되어야 한다.

## 라) 평생·민주교육의 사회적 효용성

평생교육 각 부문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구들을 조사, 청취, 상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BS의 해당 부서들은 이미 여러 매체와 조사, 연구 시스템을 통해서 시청청취자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그러나 EBS가 제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얼마

나 유용한가는 유용성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시청청취자들은 교양, 학교학습, 직무수행 등 각자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유용성을 달리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효용성을 소비자의 평가에만 기대어 판단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EBS의 설립목적, 경영목표, 교육목표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평가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 **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노력 정도**

교육방송연구소의 ‘연구조직으로의 방향 전환’은 추진 중이므로 너무 성급하게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현 시점에서 본다면 연구 인력의 충원과 다원화가 요구되며, 외주 의존도 또한 낮추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향상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은 관심을 가지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각종 연수의 효과 또는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프로그램 제작을 비롯한 EBS 전 분야의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도 마찬가지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조사분석에서 ‘EBS형 교육전문성’에 대한 검토와 지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범학교와 수능시범학교는 EBS가 현장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최선책 가운데 하나이므로 향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과지도, 생활지도, 평가, 상담 등 학교교육의 여러 영역으로 다원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 다. 기술부문

### 1) 방송기술정책

#### 가) 방송기술 정책목표 설정의 적절성

당해연도 기술목표와 EBS 설립 목적과의 상관관계와 EBS 설립 목적 달성 차원의 기술목표 설정 전략: 디지털기술본부의 기술목표 ‘선진교육 실현을 위한 융합미디어 기반 구축’의 중점추진 과제가 EBS의 설립목적과 전반적으로 부합함.

- 12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HD 전환율을 59%에서 75%로 끌어올림. 다만 통합 사옥 구축계획으로 인해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2012까지 100% 디지털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상파주조 및 NPS 구축의 디지털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함.
-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방송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라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디지털아카이브를 연계한 1단계 NPS를 구축함.
-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류없는 업무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정보공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단계 EBS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함.
- 쾌적한 방송제작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질을 높이는 방송제작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함.

당해연도 기술목표와 경영목표와의 상관관계와 달성 차원 : 경영목표 ‘교육변화를 선도하는 EBS’의 세부추진과제가 디지털기술본부의 중점추진과제와 신설된 방통융합추진단의 2010년도 기술정책 추진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어 추진됨.

- HD 전환율을 59%에서 75%로 끌어올려 총 28개소 중 21개소의 디지털전환을 완료하였고, 2014년까지 100% 디지털 전환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3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EBS 정보시스템 통합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EBS의 정보화비전 및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정립함.
- 디지털기술본부의 디지털 아카이브 및 NPS 구축과 방통융합추진단의 EDRB 서비스모델 개발과, 2014년까지의 연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함.

- 현재의 미디어환경을 감안할 때 EDRB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 IPTV 와 스마트폰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술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나) 중·단기 방송기술정책의 적실성

EBS의 ‘중·단기 방송기술정책’과 ‘미디어환경변화’와의 상관관계 : ‘2010 디지털비전 TFT’를 구성하여 디지털전환 정책, 뉴미디어 및 방송통신융합 정책,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방송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함.

-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하여 1단계 NPS시스템과 디지털아카이브를 일부 구축하여 OSMU 융합서비스 기반뿐만 아니라 e-learning을 위한 유비쿼터스 미디어 서비스의 자원을 확보하는 초석을 마련함.
- 뉴미디어 및 방통융합정책 관련으로 EBS는 2010년 2월에 ‘방통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미디어정책 및 이용환경에 대처하여 중·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EBS의 ‘당해연도 운영목표’의 ‘중·단기 방송기술정책’과의 상관관계 및 기술정책 실행계획 추진정도 : ‘2010 디지털비전 TFT’에 의해 수립된 중·단기 방송기술정책이 당해연도 운영목표에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됨.

- HD전환률 75%의 디지털전환, 디지털아카이브 및 1단계 NPS 구축과 파일럿시스템 운영,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및 방송제작환경 개선함.

## 다) 제작기술시스템 개선의 적절성

방송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작시설 개선 실적 : 방송제작시스템 개선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환경을 크게 향상시켰음.

- TV-4스튜디오와 인터넷 스튜디오(2실) HD 전환,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1실 및 인터넷 스튜디오 1실을 구축하였고, 통합전파 측정차량 도입함.
- 대부분의 스튜디오와 편집실에서 아직도 일부 SD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현재 투자계획 외에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라) 미디어 환경 대응의 적절성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계획 및 전략 : 뉴미디어 및 방통융합정책 관련으로 디지털기술본부의 기술정책과 함께 ‘방통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미디어정책 및 이용 환경에 대처하여 중·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 EBS의 각종 웹사이트의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IPTV, 모바일 등 EBS의 차세대 서비스를 모색하며, EBS 콘텐츠의 EDRB 구축 전략 수립과, EBS의 향후 인터넷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전략 수립함.

미디어 환경변화에의 대응실적 : 디지털전환을 포함하여 적절히 대응함.

- TV-4부조 HD전환을 포함한 75% HD 전환율의 디지털전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인터넷 스튜디오(2실) HD전환,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1실 및 인터넷 스튜디오 1실 구축, Tapeless 제작 장비 보강, 3D 촬영장비 도입
- 정보기술연구소의 스마트폰을 위한 실시간 방송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KOBA 2010’에서 성공적으로 시연하여 EBS의 기술력을 보여줌.
- EDRB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 IPTV 와 스마트폰을 위한 방통융합 교육서비스 기술개발정책을 확대수립하고 다양한 매체에 적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 있음.

## 2) 방송기술개발

### 가) 방송기술개발 노력의 적절성

방송기술 연구개발 제도 및 시스템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개발 제도와 시스템 수립이 요구됨.

- 디지털기술본부내 정보기술연구소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대형과제의 경우 포럼이나 컨소시엄 협력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결과물을 공유함.
- 제한된 기술 인력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개발 제도와 시스템 수립이 요구됨.

방송기술 연구개발 실적 : 자체기술개발 2건의 연구와 EBS 외부 기관들과 수행한 공동연구 5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특허, 논문발간, 표준화반영실적이 미미함.

- 차세대방송표준포럼에 참여하여 개방형 하이브리드 OHTV 개발, 소프트웨어 다

운로드 서비스(SDDS) 개발, 실시간 멀티채널 MPEG 포맷변환 및 기가비트 전송장비개발, 지상파 양안식 3DTV 연구과제 4건의 공동연구 추진함.

- 스마트폰을 위한 실시간 방송 서비스 시스템과 EBS 직원수첩 iContact 자체개발함.
- 제작지원기술 개발과 과제수행실적 외에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발간, 학술발표, 세미나발표, 국제 및 국내표준화반영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목표설정이 명확히 수립하여야 함.

방송기술연구 관련 장비 및 시스템 보강 투자금액 : 총매출의 0.123%인 3억원정도 투자하여 투자금액 인상 필요함.

- 투자금액 대부분이 방송기술연구 관련 장비 및 시스템 보강을 사용됨.
- 신기술 및 신장비 도입등 연구개발 관련 투자금액 인상 필요하며 타 방송사를 벤치마킹하여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연구개발투자비로 책정하는 방안 검토 요함.

## 나) 디지털 방송 제작·송출 시스템 투자의 효율성

디지털 방송시스템 투자비율 및 디지털 방송시스템 활용률 : 매출액의 3.8% 투자와 100% 이상의 활용률로 적정함.

- 제작시스템에 약 86억원 그리고 송출시스템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매출액의 3.8%에 해당하는 97억원을 디지털방송시스템에 투자함.
- 가용대비 평균가동율은 101.7% 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FM스튜디오의 경우 145% 가동율을 보임.
- 현재 수립되어 있는 디지털전환계획에 지속적 추진이 요망되며, 통합사옥이 완공되는 2014년에 통합주조의 HD전환으로 275억원이 집중투자되어야 하므로 사업부문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됨.
- 송출시스템에 대한 디지털전환은 2012년과 2014년에야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있어 제작시스템과 송출시스템과의 디지털화 불균형 우려됨.

## 다) 디지털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의 적절성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현황 : 적절한 관리교육과 유지보수 이루어 짐.

- 10회의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자 교육이 이루어짐.

- 10회에 걸쳐 라디오 주조정실의 오디오파일 시스템유지보수를 시행함.

방송기술 향상을 위한 미래전략 추진실적 : 수립된 ‘방송망 및 무선국 운영기본계획안’에 의거 방송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방송망의 안정을 유지함.

- 본사와 우면동 방송센터 간 HD급 Highway 인 Giga급 디지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고속·대용량 정보 전송능력 가짐.

## 라)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노력의 적절성

방송시스템의 디지털화 구축 및 콘텐츠 관리시스템 운영실적 : 디지털스튜디오 및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함.

-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콘텐츠관리 및 효율적인 콘텐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함.
-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의 확장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의 수립이 요망되며, 디지털아카이브, NPS, ERDB를 결합한 OSMU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 검토 필요함.

## 마) 전문 인력 확보의 적실성

중·장기 전문인력 수급 전략 및 계획 : 중·장기 수급계획보다는 2010년도 연수계획의 기본방향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디지털기술본부 인원 54명이 방송, 영상, 기술, 뉴미디어 등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료조사를 위해 해외연수에 참여함.
- 41회에 걸친 국내연수에 71명 이상이 참여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동향을 파악함.
-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단기연수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선요함.

## 3) 방송기술운용

### 가) 송출품질 법정기준 준수의 적정성

‘송출품질 법정기준 준수’ 담보제도 및 준수율 : 아날로그 TV방송국, DTV 방송국, FM 라디오 방송국 모두 송출품질 법정기준을 준수함.

신호품질 저하 예방시스템’ 운영실적 : 정기적 점검으로 신호품질 저하 예방함.

## 나)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방송관련 신기술정보의 취득방법 및 활용 현황 : 국내방송장비업체와 세계적인 전시회, 국내방송전시회, 방송신기술관련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기술 정보를 취득함.

- 국내방송장비관련 30여 업체와 지속적인 미팅가짐.
- 해외전시회 CCBN, NAB, IBC, InterBEE 참가하여 신기술정보 취득함.
- KOBA, 업체별 신제품세미나 및 컨퍼런스에서 국내정보 취득함.

방송장비 도입의 체제 운영현황 :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도입됨.

## 다) 방송망 관리의 효율성

방송사고 대처능력 개선실적 : 방송망 안정성 개선을 위해 방송망 확충 및 방송사고 대비 대처방법 교육을 실시함.

- 안정적인 방송망 관리를 위해 TV전국망 회선 신설, 광회선 백업 망의 확대, 전국 송중계망의 안정성 조사 등을 실시함.
- 방송센터와 관악산송신소와의 STL주회선을 안정성 높은 무선망(M/W)으로 변경하여 주·예비1 회선을 모두 안정성이 높은 무선(M/W)으로 자동전환 되도록 운용하고, 예비2(유선)는 대기운용 방식으로 구축함.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운영실적 :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교육 실시함.

## 4) 방송기술성과

### 가) 제작시설 활용의 효율성

시설배정 절차기준 및 운영의 합리성 : 제작시설의 평균 활용률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배정기준과 운영에 관한 제작시설 운영시스템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

제작시설 운용시스템의 합리성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배정기준과 운영에 관한 제작시설 운용시스템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높은 제작시설의 높은 활용률로 미루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함.

방송 제작시설 운영의 효율성 : 방송제작시설 및 장비의 가용대비 평균 가동율이 101.7%로 현재 최대한의 효율로 방송제작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됨

- TV스튜디오(5실) 103%, 편집실(11실) 113%, 더빙실(1) 78%, FM스튜디오(5실) 104%, ENG카메라(18팀) 107%, 중계차(1,2호) 105% 의 가용대비 가동률을 나타냄.
- 통합 신사옥의 조속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나) 방송시스템 활용의 효율성

‘방송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실적 : TV스튜디오, 편집장비, 중계차, 스페이스 홀, 송출시스템 부문 등에 있어서의 방송장비 활용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

- TV-4스튜디오의 경우 가용대비 50% 배정대비 57%의 가동률을 보여 시간배정 조정할 필요 있음.
- 특수영상편집장비(NLE)를 이용해 21개 제작프로그램의 대부분의 고급화작업을 수행하였고, 중계차는 비디오 인력 3명, 오디오 인력 3명의 소수 인원으로 중계차 2대를 운영하여 무리 없이 298편의 프로그램 중계제작을 지원함.
- 2010년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 제작 녹화 132회, 스페이스 공감 공연 210회를 높은 활용도 보임.
- EBS 송출운용시간은 EBS TV 20시간/일, EBS 플러스1 24시간/일, EBS 플러스2 20시간/일, EBS English 20시간/일, EBS u 12시간/일 운영하고 있음.
-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EBS u(위성 DMB) 등을 통합 운영하는 ‘멀티 송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송출시설의 활용률을 극대화함.

## 다) 지역도달률 개선노력의 효과성

공중파TV 및 라디오 방송 난시청 지역해소 노력 및 실적 : DTV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DTV 간이보조국(DTVR)의 지속적 설치, 일선학교 EBS 방송 수신환경 개선노력 보임.

- 경북 울진군 전역(총 21개소)에서 DTV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서울시 및 경기도 일부(총 20개소) 지역에서 KBS3 FM 허가에 따른 EBS FM과의 전파혼선 여부를 확인함.
- DTV 간이보조국(DTVR)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2010년말에 77개소의 간이보조국(DTVR)이 설치됨.
- 전국 일선학교 방송시설에 대한 EBS 방송수신 상태를 점검하고 EBS 방송 수신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술지원을 하여 방송수신 관련 민원을 해소함.

## 라) 프로그램 품질개선 기술지원의 적절성

프로그램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실적 : 방송시스템 및 장비의 유지보수, 방송시스템 설비 검토 및 관리, 수신 기술 지원, 그리고 EBS 대외 홍보에 따른 기기 운영 지원 실적이 적절함.

- Camera 장비유지보수 74건, VCR장비 유지보수 330건, 음향장비 및 CG장비(그래픽부) 및 NLE장비 유지보수 291건, 기타 기술부서 이외의 방송장비 30건을 유지보수함.

프로그램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평가 시스템 운영실적 : 부서별 정기적인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해 품질개선을 지원함.

- 영상기술팀 프로그램시사회 및 검토 회의 12회, 제작기술팀 프로그램 시사회 12회, 스텝간담회 12회, 편집팀 프로그램시사회 12회, 중계팀 9회 11편 시사회, R기술팀 48회 시사회 실시함.

## 매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성

인터넷수능강의 사업 등 인터넷서비스 안정성 확보 실적 : 스트리밍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과 자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VOD다운로드 임차서비스를 실시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함.

- 2010년 인터넷 수능강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트래픽이 폭주를 맞아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38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스트리밍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과 자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VOD다운로드 임차서비스를 실시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함.

다운로드 속도 개선 실적 : VOD다운로드 임차서비스 도입하여 다운로드 시간을

약 3배~13배 정도 속도로 개선함.

- 600Kbps 50분 강의(200MB)는 4분15초~6분, 1Mbps 50분 강의(400MB)는 6분55초~10분 정도 걸렸으나, 임차서비스 후 각각 19초~2분과 32초~4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약 3배~13배 정도 속도로 개선함.
- 현재 70G의 트래픽 가용성을 갖고 다운로드 서비스하고 있고, 10G 와 15G의 예비 공용서버 갖춤.
- 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요함.

## 5)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 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노력 정도

소관부문에서 제시한 ‘평가결과지적사항 개선계획(지표별)’에 대한 개선실적 :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201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함.

- 2010년도의 디지털전환에 15억원의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20억원을 투자하여 75%의 HD전환률을 달성함.
- 1단계 NPS시스템구축을 통하여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과 연계한 NPS 시스템 구축 의지 확인함.
- 국내외 타 방송사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강화하고 미래 방송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기술 노하우 습득을 위해 다양한 연구 영역 확보와 예산확보 위해 노력하였으나, 프로그램 제작지원기술 개발과 과제수행실적 외에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발간, 학술발표, 세미나발표, 국제 및 국내표준화반영실적 등에 대한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실적을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수립되어야 함.
- 방송통신 정책, 모바일, 스마트TV, SNS,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뉴미디어 관련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대함.
- 인터넷 수능강의 안정화를 위해 교과부 특별교부금 38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스트리밍 서버를 증설하고 스토리지를 4대 업그레이드하고 웹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 또한 VOD다운로드 임차서비스 도입하여 다운로드 시간을 약 3배~13배 정도로 속도 개선함.

## 라. 경영부문

### 1) EBS 경영전략

#### 가) EBS 경영전략의 적절성

공사의 경영전략은 EBS의 설립목적과 방송법의 방송목표와도 연계성이 높고 2010년도 동안 추진한 사업에도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 공사의 설립목적과 공사의 2010년도 경영방침을 검토한 결과 EBS의 설립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평가된다.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0년도 공사의 사업추진 실적은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절하였다고 평가된다. 제언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계획을 통해 수립된 당해연도 경영전략을 공사의 방송목표, 설립목적, 경영지표, 핵심가치, 전략목표로 이어지는 일목요연한 정리를 통해 공사의 각 구성원이 항시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나)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의 적절성

EBS의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비상임 이사 9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원 임명하며, 이사회 의장과 집행부의(대표) 분리 운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 공사는 2010년 1월 5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시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하였다. 이사회는 전년도인 2009년보다 이사회 활동의 횟수도 많았으며 심의·의결한 안건 또한 많은 등 적극적인 이사회운동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공사는 2010사업연도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외부경영평가 전문가의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는 등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도 높은 경영평가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게 됨으로써 경영투명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된다.

## 다) 책임경영 구현 노력 정도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단위의 적절한 설정과 각 단위의 권한과 책임이 연계될 수 있는 지표의 활용 등 책임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전제될 사항들이 있다. EBS는 부서성과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KPI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KPI가 책임경영 단위의 KPI로서 전사KPI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야 책임경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경영이 필요한 구분손익 단위를 설정하고 공사의 전략적 방향성과 일치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EBS 조직 및 인사관리

### 가) 조직관리의 합리성

부서별 업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명확한 책임과 권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단위 조직에 부여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 재구조화를 실행함으로써 디지털 패러다임의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조직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등 모호하게 설정된 직무 및 단위 업무를 구체화하고 최대한 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책임경영이 실현되도록 하는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2010년 수행한 조직컨설팅 결과 2011년도 상반기 중 Value Chain 중심의 직제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직제개편과 연계하여 구체화되고 명확한 규정개정과 직원 고령화에 따른 업무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신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인사관리의 합리성

사내공모제, 개방형직위제도와 같은 새로운 인사제도를 신설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구현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성과보상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비금전적 보상책으로 포상, 연수,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으나, 승진보상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승진 등)반영되고 있어 당해연도 고성과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에는 미흡하다.

2010년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습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직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통한 역량발전이 공사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직원 연수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 미흡한 점은 없으나, 앞으로도 비용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직원 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비용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 다)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EBS의 노사는 상시적,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경영관련 정보의 공유와 성과공유를 통해 노사의 생산성 증진에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적용에 합의하였고, 성과부진자에 대한 상시 퇴출제도,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 유급 휴직 제도의 도입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협력하였으며, 총 13회에 걸친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노사 직원들의 조직 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라) 구성원들의 만족도 정도

내부 고객(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내부 고객의 현재 만족도 수준을 점검하고, 공사가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내부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에 나타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전략 우선순위, 예산 수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부 고객(직원) 만족도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3) EBS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 가) 인건비 관리의 적절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경비 비율이 2009년 22.9%, 2010년 21.6% 수준으로 매출

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타 공영방송사(36.2%) 대비 낮은 비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0년도는 매출액 증가(26.9%)가 매우 큰 반면 인건비성경비 증가(19.7%)는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수인력의 확보와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고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연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다.

## 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적절성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판매관리비 비율을 유지하였다. 전년도 결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직전 3개년('07~'09년) 평균 13.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예산절감 및 재정효율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타 방송사 및 방송업계 전체의 판매관리비 비율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EBS의 수익이 수능연계율에 크게 연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매출의 증가와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구분손익을 도입하여 각 사업부별 매출과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 등 제경비의 발생인과관계를 관리하여야 사업변화에 대응한 비용관리를 좀더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EBS는 공적재원보다 상업재원이 매우 많은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공영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신료 월 970원의 필요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EBS의 현재 재원구조는 수신료 등의 공적재원의 비중이 28.1%('10년 기준) 수준이며, 특히 수신료 비중은 6.6%('10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용구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 자체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2010년 예산집행율은 94.4%로서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수립과정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소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1년 예산을 수립하는 업무처리 절차개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업별 잔액 예산 및 예비비 전용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예산집행율이 전기 대비 5.6% 증가하였다.

## 라)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EBS의 재무 및 성장성 지표를 검토한 결과 전기 대비 재무구조가 건실화 되었으며 성장성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평가된다. 공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차입에 의한 경영을 지양하고 있으나 자체사업의 확대 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차입을 통한 자금운영을 검토해 볼만하다. 자금관리는 부족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사전 예측을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여유자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특히, 원리금 상환을 수반하는 외부차입이 없는 EBS의 경우는 운영자금의 수지시점관리와 여유자금의 효과적 운영 및 자금운영 사고방지를 위해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출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연계하여 사이버 자금관리 및 출금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업무처리의 개선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 마) 경영정보 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파견직 인력의 잦은 교체로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전산기술 인력의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NPS 시스템 구축, 초등/중등 사이트 구축등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의 요청이 빈번해지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타 시스템과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한 전산기반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4) EBS 경영성과

### 가)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2010년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능강의 사업비의 획기적인 증액과 높은 수능 연계율 정책이 수행된 한해였다. 비용예산집행률이



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수익목표 달성을 또한 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체수입의 큰 폭의 증가에 기인한 전체 수입금액의 전기대비 증가를 고려하면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평가된다. 큰 폭의 총수입 증가에도 당기순이익 38억원을 실현함으로써 수익성 지표는 전기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익의 건전성은 저해되지 않는 실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EBS의 적정이윤과 운영비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EBS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실적분석 및 공개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수익구조에서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구분손익을 통한 사업분석이 적절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나) 공적재원비중 및 수익구조 개선의 적절성

EBS는 공적재원 비중이 약 30%수준('10년 28%)을 유지하고 있다. 공적재원 수입은 전년대비 127억원 증가한 682억원이다. 2010년도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무료 수능강의 및 영어교육채널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하는 등 공적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 공익적 역할 강화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와 함께 자체수입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수익구조 개선이 높이 평가된다. 다만, 자체사업은 큰 폭의 증가를 이룬 반면 공적재원의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공적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수신료 수입 비중('10년 6.6%)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재원의 공영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향후 재원의 공영성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신료 배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신료 재원 확충시 실천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함으로써 수신료 배분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 브랜드가치 제고노력의 적절성

대외 공사홍보 전략에 있어 홍보의 내용적 측면이나 양적 측면은 전년도 평가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관련한 미디어환경 변화와 홍보채널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화

되어 가는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EBS의 해외 홍보전략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랜드가치는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전달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서비스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교육방송 36년 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EBS의 중·장기브랜드전략에 대한 점검과 대외홍보 전략이 유기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 라)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 정도

EBS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사진, 영상촬영, 인터뷰 등)과 홍보 동영상 제작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홍보, 마케팅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EBS의 사회적 위상과 책임을 고려할 때 경영전략 목표와 잘 부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팀과 사회공헌사업과의 직접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부재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의 기록 및 촬영 등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회공헌사업 실적을 보면 주로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있는바, 이는 사회공헌팀이 2010년 9월 전문팀으로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팀으로 발족한 만큼 사회공헌팀은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고취 달성과 함께 사전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 5)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 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노력 정도

전년도 경영부문 경영평가결과에 대하여 대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이행하였으며 이행하지 못한 사안은 계획수립을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책임경영과 관련해서는 그 이행이 다소 부진하였다. 이는 회사 운영의 전반에 대한 검토가 전제 되어야 실효적인 방안이 이행될 것 이므로 개선을 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